

石田 黄瑗의 抗日 抵抗詩 研究*

金正煥**

<차 례>

- I. 머리말
- II. 亡國의 恨과 遺民意識
- III. 憂國과 抵抗意識
- IV.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新學校와 신학문이 많이 보급됨으로써 한문학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한글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문학은 극히 소수에 의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문학 교육 또한 한글로 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일제강점기 국문학은, 아직은 습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학 작품이 대부분이며, 항일 저항시는 이상화, 심훈, 윤동주, 이육사 등 몇몇 문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필자 등이 전남대 호남한문학연구실에서 근·현대 호남 한문학 자료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KRF-2002-073-AS1038)

** 광양제철고등학교

를 조사한 결과 20세기에 활동한 호남 문인들의 간행 문집만도 천여 종이 넘고, 未定稿까지 더하면 수천 종에 이를 정도로 한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구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적음¹⁾에도 불구하고 한시 창작 인구가 월등히 많았고, 詩社 활동이 활발하였으며²⁾, 또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다.³⁾ 항일 저항시 또한 수백 편에 이른다.

일제강점기 구례 시인 가운데 梅泉 黃玆(1855~1910)의 시의식과 애국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인물로는 매천의 둘째 아우 石田 黃瑗(1870~1944)을 들 수 있다.⁴⁾

석전은 1870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서석 마을에서 황시목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초년에는 봉강면 玉泉 金珪錫(1843~1920)에게 수학하였으며, 17세에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주한 뒤로는 형 매천에게 시를 배웠다. 그는 외모나 품성이 매천과 흡사하였다고 한다.⁵⁾

그림자처럼 매천을 따라다니며 시문을 배우고, 『오하기문』 등 저술 활동

1) 1930년대 구례 인구는 약 48,000여 명이었으며, 현재는 약 28,000여 명에 불과하다.

2) 金正煥, 「20세기 구례의 詩社 연구」, 『語文論叢』 16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8. 109~133쪽.

金正煥 編, 『礪川詩社』, 礪川詩會, 도서출판 다컴, 2005.

구례지역의 시사는 16.7개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현재까지도 4개의 시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남 타 지역의 경우는 많아야 5,6개, 적게는 두 세 개에 지나지 않는다.

3) 구례 시인들 가운데는 이산 유제양과 유당 윤종균은 1만여 수를 남겼으며, 황원은 3천여 수, 매천 황현은 2,300여 수 등 다작을 지었다. 이 밖에 천사 왕석보, 봉주 왕사각, 소천 왕사찬, 운초 왕수환, 오석 유형업, 묘원 허규, 동곡 정난수, 호석 유영, 율계 정기, 고당 김규태 등도 천 편 이상의 작품을 지었다. 이 밖에도 많은 시인들이 수백 편씩의 한시를 남겼다. 또 현재 전하는 시사에서 창수한 시만도 5,000여 편이 넘는다.

4) 이제까지 황원과 관련한 논문으로 李相寔, 「石田 黃瑗의 生涯와 思想」, 『역사학연구』9, 전남대, 1979 ; 장선희, 「梅月吟社 研究」,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학회, 2001. 217~219쪽 등이 있을 뿐, 시문과 관련하여 언급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학계 보고를 겸하고 있다.

5) 金文鈺, 「追挽呈石田黃公靈筵」, 『曉堂集』 권1.

을 하는 데 자료를 정리해 주었으며, 그 자신도 『平等論』과 『駕洛國史』를 저술하였다. 사후에는 형의 殉節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문집을 간행하였으며, 文章節義 정신을 잇고자 하였다.

석전은 體容은 맑고 여위었으며, 눈썹은 성글고 수염은 길었으며, 기상은 호쾌하고 抗傲하였으며, 감히 의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다.⁶⁾

1910년에 매천이 자결 순국하자 군사인들의 비분이 격앙하고 곡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다. 왜는 변란이 있을까 두려워 군경 무리들은 의사를 대동하고 검진하여 병사한 것으로 속여 인심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석전은, “너희는 무도하게 이미 우리 조국을 멸망시켰으면서 다시 義士의 이름을 없애려 하느냐? 내 차라리 너희와 싸우다 지하에 계신 형을 따라 죽을 지언정 義士의 이름을 없애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하고 더욱 분노하며 항의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옮기고야 말았다.

1911년 봄에는 울적한 심사를 달랠 길 없어 서울에 갔다가 친구 김상국과 함께 여규형을 방문하였는데, 좌중에서 석전이 布衣古冠으로 시골사람임을 알고 벽에 걸려 있는 패종시계를 가리키며, “시골에도 저런 新品이 있습니까?” 하니, 석전은 “패종뿐만 아니라 다른 신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와서 보니 시골에서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엇이냐고 묻자, “公候伯子男이요.”라고 하였다. 좌중 사람들 가운데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낯빛이 붉어지며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⁷⁾

또 도지사 장헌식 일행이 화엄사 덕당전에 좌정하고 군내 유림을 모두 초청하였다. 유림들은 모두 一拜를 하고 도지사를 배알하였는데, 오직 석전만이 도포와 큰 관으로 평좌하여 “이 좌중에 도지사가 누구요?” 하니, 수행했던 관원들은 “일개 백성으로서 도지사에게 절을 하지 않고 평좌라니?” 하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이에 석전은 정색하고, “나도 육십이 넘은 이 나라 선비

6) 權鴻洙, 「黃石田公行狀」, 『石荷偶存』 권4.

7) 앞의 글.

의 한 사람인데 그것은 아니 될 말”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⁸⁾

이처럼 석전은 외모는 비록 수수하였지만⁹⁾, 형 매천처럼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굽히는 법이 없이 당당하였다. 그는 43세에 喪妻하고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으며, 江湖旅人이라 自號하였다.

석전은 雲樵 王粹煥(1865~1926)과 梅史 朴暢鉉(1863~1929), 芝村 權鳳洙(1872~1940) 등과 함께 매천의 유집을 정리하고, 상해의 滄江 金澤榮(1850~1927)에게 보내 간행하고, 비밀리에 국내에 반입·배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에서 국내에 반입한 『매천집』을 회수하여 소각하려 하니 그는 경찰서와 총독부에 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서 되찾아왔다. 이로써 일제 당국에서도 그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였다.

1919년에는 조카 黃潤顯 등이 3.1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배후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27년 2월에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뭉쳐 新幹會를 조직하였는데, 이 때에도 황위현을 시켜 신간회 구례지회를 조직¹⁰⁾하여 독립투쟁을 하도록 독려했다.¹¹⁾

1932년에는 상해본 『매천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총독부 검열본’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검열 삭제되어 끝내는 출판을 하지 못하였다.¹²⁾

석전과 깊이 교류한 인물로는 중국 회남의 망명객으로 『매천집』 등을 간행한 金澤榮(1850~1927), 만주 망명객 李建昇(1858~1924), 양명학의 거

8) 『義筆 第二』.

9) 석전은 언제나 구레나룻 수염에 파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력이 극단으로 나빠서 괴물스런 독보기가 얼굴의 반을 가리웠다. 조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굵고 낮았다. 낮고 현, 쉿이 넓은 것 그리고 작은 몸집이 돌도 들어갈, 넓은 두루막을 하고 있었다(閔泳珪, 『江華學 최후의 광경』, 도서출판 우반, 1994, 25쪽.).

10) 신간회 구례지회가 결성된 때는 1927년 6월 4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초대 지회장은 梁仁淑, 조사부장은 黃巖顯이었다. (『중외일보』1927년 6월 8일자)

11) “제군들과 손잡고 선문을 나서니, 엄숙한 것 끝엔 國魂이 서리었다(諸君聯袂出禪門 肅肅幅簷擬國魂)(黃 璵, <贈別新幹會諸君>, 『江湖旅人詩稿』.).

12)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에서 발간한 『梅泉全集』 5책은 석전의 총독부 검열본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장李建芳(1861~1939), 국학자 鄭寅普(1892~1950?)·崔南善(1890~1957)·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교장 朴漢永(1876~1956), 경학원 대제학 鄭萬朝(1858~1936), 한문학자 呂圭亨(1849~1922), 호남의 시인 李定稷(1841~1910), 대구의 성리학자 曹兢燮(1873~1933), 언론인 張志淵(1864~1921) 등이 있다. 또 구례의 시인으로는 유제양·왕수환·박창현·권봉수·尹鍾均(1861~1941)·李炳浩(1870~1943)·許奎(1861~1931) 등이 있다. 그는 경향의 벗들과 서신 왕래로 분노와 고적을 메웠는데, 만년에는 우인들의 서찰로 병풍을 만들어 두고 보면서 지냈다고 한다.¹³⁾

그의 시문은 분량이 많은데, 이견방과 정인보가 시문집 4권을 교정하여 정인보가 출간하려다 남북됨에 따라, 교정본은 사라지고 현재는 초고본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친필본 『江湖旅人詩稿』와 『江湖旅人文稿』가 아닌가 생각된다.

석전의 시에 대하여, 석정 이정직은 청경하다¹⁴⁾하였고, 창강 김택영도 크게 칭찬하였다.¹⁵⁾ 또 고을의 후배 고당 김규태는 “유창한 말은 은하수를 거꾸로 달아놓은 듯, 쟁쟁한 시는 쇠를 던지는 소리 같더라.”¹⁶⁾고 하였다. 또한 여수 종산시사 주관 忠愍祠漢詩公募展에서는 4등, 진주 축석루시사 공모전에서는 2등을 할 정도로 시재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민시사는 전국에서 3천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입상한 것이며, 축석루시는 사상 문제로 1개월간 수감될 정도로 문제작이었다.¹⁷⁾

13) 權鴻洙, 「石田公事行錄」.

14) 萬壽洞 許卯園 李白村 吳翠軒 及 黃梅泉之弟石田 詩皆清警(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3, 김제문화원, 2001, 107쪽).

15) …且須揀兄好著作 蠅頭速寫暉連釘 使我洗手傳天下 虞山諸人折慢幢(金澤榮, <和黃瑗贈詩>, 『金澤榮全集』1, 아세아문화사, 1979, 289쪽).

16) 滾滾舌懸倒河勢 鏗鏘詩有擲金聲(金文鈺, 「追挽呈石田黃公靈筵」, 『顧堂集』권1).

17) 충민시사는 충무공 사액사당 제1호로, 목숨을 받쳐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과 의민공 이억기, 좌관성 안흥국 세 장군의 구국충정을 기리는 사당이며, 축석루는 임진왜란 3대첩으로 알려진 진주대첩의 현장이요, 7만 민관군의 넋이 서린 聖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이곳을 추모하는 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할 정도였다. 축석루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본고에서는 3,000여 편에 이르는 석전의 漢詩 가운데, 온몸으로 써내려간 백여 편에 이르는 抗日 抵抗詩를 연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30여 년간 저항한 석전의 삶이 어떻게 작품 속에 투영되었으며, 또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韓國文學史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II. 亡國의 恨과 遺民意識

일제강점기의 상황적 비극성을 가장 극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문학적 성과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저항적 의지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른바 ‘저항시’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¹⁸⁾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국민 대부분은 나라를 잃은 허탈감과 자괴감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이는 산야에 들어박혀 은둔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국경을 넘어 망명길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음주하며 세상을 잊고자 하였다. 또 의식 있는 선비들은 수일동안 식음을 전폐하다 자결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독립 투쟁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향촌지식인들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식민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구례 인사들의 경우 매천의 유집 발간을 계기로 한데 뭉쳐 문집을 발간하고 비밀리에 배포하는 등 응집력을 과시하였지만, 이후 대부분은 현실에 크게 저항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은 허탈감을 시주로 자오하며 나날을 보내다가 시사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서로의 의사를 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제는 집회·언론·결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란 飲酒醉樂과 詩作의 성격을 지닌 詩社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19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사가 창설되고 이를 통해 많은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다.

18) 권영민, 『항일저항시 감상』, 독립기념관, 1992, 13쪽.

詩社에서 산출된 시의 경우, 시사의 특성상 자연 경관이나 시사에 관한 내용, 혹은 시절의 아름다움과 飲酒醉樂이 대부분이다. 일제강점기의 詩社詩는 일종의 遺民意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석전은 여타의 시인들과는 달리 飲酒醉樂으로 自娛하지만은 않았다.

다음의 <龍湖亭原韻>이 이를 증명해 준다.

名勝吾鄉有此臺	내 고향 명승지에 용호정이 있어
登臨全境眼中回	올라보니 온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네.
西風畫角孤城動	서풍에 화각소리 외로운 성에 진동하고
疏雨空江一帆來	성긴 비 내리는 텅 빈 강엔 돛단배 하나 오누나.
嘯詠長存千載月	시 읊는 소리는 천년의 달빛에 담겨 있고
笙歌不斷四時盃	풍악소리는 사계절 술잔에 끊이지 않네.
新亭翬草山河改	새로 세운 정자는 산하 속에 화려하게 서 있으나
白首遺民恨未開	살아남은 늙은 백성 한을 달랠 길 없으라. ¹⁹⁾

1920년 용호정시회에서 읊은 작품으로 현재 용호정에 揭額되어 있다. 용호정은 1917년 이병화와 왕수환 등 구례인사 72명이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마산천과 文江이 만나는 龍臺 위에 세운 정자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섬진강 맑은 굽이와 백사장, 백운산 끝자락 鰲山과 鳳城山, 그리고 남도의 영산 智異山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절경으로 시인묵객이라면 꼭 한번씩 찾는 명승지이다.

起句는 송시열의 문인 李敏敍(1644~1688)의 “元帥登臨有古臺, 想看戈甲眼中回.”²⁰⁾과 의경이 비슷하다. 춘추가절을 만나 아름다운 곳에서 우인들과 飲酒作詩하는 시인의 마음은, ‘시 읊는 소리는 천년의 달빛에 담겨 있고, 풍악소리는 사계절 술잔에 끊이지 않으며, 새로운 정자는 산하 속에 화려하게 서 있으나’ 이러한 화려함과 즐거움도 ‘살아남은 늙은 백성 한을 달랠 길 없

19) 황 원, <龍湖亭原韻>, 앞의 책.

20) 元帥登臨有古臺 想看戈甲眼中回 沙洲鷗鷺至今在 渤海風雲隨我來 拳石湖中青一朵 搏沙浦上白千堆 獨憐巖畔蒼髯老 好事何人手自栽(李敏敍, <元帥臺>, 『西河先生集』 卷之五.).

어라.’ 하고 유민의 한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망국의 한과 유민의식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1913년 除夜를 보내며 쓴 시에서도 이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天時人事暗中移	天時와 人事도 은연 중 바뀌고
獨待鷄鳴夢又遲	홀로 닭 우는 소리 기다리니 꿈도 더디네.
童子不知亡國恨	아이는 망국의 恨 아는지 모르는지
鼓金終夕似平時	金鼓도 밤새도록 평소처럼 울리네. ²¹⁾

제야시치고는 우울한 심사를 내비치고 있다. ‘獨待鷄鳴夢又遲’는 다소 복합적이다. 1913년이면 상해에서 매천집 속집을 간행한 해이다. 또 지난해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홀아비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야말로 바쁘고 어렵게 살아온 한 해이니 이제 밝은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실낱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닭울음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만 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의 강도가 깊다는 의미이다.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의 시대적 아픔과는 상관없이 곤히 잠들어 있고, 천은사 종소리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울려 퍼진다. 시의 후반에 전반부의 시인의 한스러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구를 배치함으로써 한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宗兄 황석(1848~1919)을 애도하는 시이다.

見義隨時各有方	의를 보면 시절에 따라 방도가 있으니
叢山晚節久惟香	유죽산의 만년 절개 오래도록 향기 나네.
世人吹索何須說	世人들의 吹索을 말할 것이 있으랴만
死國人多國不亡	순국하는 이 많으니 이 나라 망하지 않았네.

21) 황 원, <癸丑除夜·6>, 『松濤閣詩稿』, 권1.

興亡不是儒門責 나라 흥망이 儒門 책임 아닐진대
 往往儒門飲鳩卮 종종 儒門에서 독주를 마신다네.
 吾家二老何心恨 우리 집안 두 노인 어떤 한을 품었기에
 不盡天年使我悲 천수를 못 누리고 나를 슬프게 하네.²²⁾

항석은 남원 수월리에서 태어났으며, 음직으로 참봉직에 나아간 적이 있다. 그는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침탈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擧義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망국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자 絶命詩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 때를 놓쳐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로 계속 자결의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1919년 1월 3일 부친의 제삿날을 기하여 단행하였는데, 또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2차 시도도 실패하고 본의 아니게 치료까지 받던 중, 1월 8일 다시 틈을 타 자결하였던 것이다.

남원 수월리는 원래 석전의 조부가 살았던 곳이다. 집안에서 두 형들이 순국하였으니 석전의 슬픔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많으니 이 나라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석전 자신도 이들을 따라 순국의 길을 택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하였다.

망국 문제와 더불어 의를 논하는 작품은 주로 전 왕조 회고를 제재로 하는 것들이다.

橋邊春水漾沙清 다리 곁 봄물 출렁이니 강모래 곱고
 野雪血痕非血明 들 눈에 혈흔은 피는 아니지만 선명하네.
 屈指千秋亡國史 千秋의 亡國史를 손꼽아 보아도
 幾人立節似先生 선생처럼 절의를 세운 이 몇 분이나 될까.²³⁾

22) <族兄參奉 王爽氏 聞太皇賓天 自刎而殉 以詩追哭>, 『강호여인시고』.

23) <善竹橋>, 앞의 책.

석전이 1919년에 개성을 방문하였을 때 쓴 <善竹橋>라는 작품이다. 선죽교는 고려 말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오다가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 등에게 쇠몽둥이로 맞아 피살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돌다리에는 아직도 정몽주의 혈흔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이름은 善地橋였으나 정몽주가 피살되던 날 밤, 다리 옆에 대나무가 났기 때문에 선죽교로 고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한 연유로 이 다리는 충절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

3·1 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던 석전은 서울을 거쳐 개성을 방문하였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개성을 들르면 박연폭포를 읊었으나, 석전은 명승지를 돌아보는 대신 역사적인 선죽교와 만월대만 들러 정몽주의 절의와 망국의 한을 회고하였다. 특히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려의 궁궐터 만월대에 들렀을 때는 길재나 원천석의 시조와 유사한 인생무상과 회고의 정을 노래하였다.²⁴⁾

개성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울에 들렀을 때도 그가 찾아가 한결같이 읊은 작품은 <景福宮>, <慶會樓>, <宗廟>, <健元陵>, <洪陵> 등 모두 조선왕조와 관련된 곳이다.

終南如黛夕陽紅	눈썹 같은 終南山은 석양에 붉게 타고
楊柳春風水殿空	버들에 춘풍 불 제 물가 궁전 비어 있네.
太息先王行樂地	아아, 선왕께서 즐기시던 곳,
繁華只是鳥聲中	화려했던 이곳에 새소리만 요란하다. ²⁵⁾

화려했던 조선 역사의 중심이었던 경복궁 경회루에 들렀으나 석전이 목도한 것은 주인 없는 텅 빈 누각뿐이었다. 경복궁 연못 안에 있는 이 건물은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잔치를 하거나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이었다. ‘終南如黛夕陽紅 楊柳春風水殿空’에서 단련된 자는 ‘紅’과 ‘空’이다. 눈썹같이 둥그런 남

24) 敗瓦消軀填御溝 麗王宮殿一孤邱 人間難得黃梁夢 況復繁華五百秋(<滿月臺懷古>, 앞의 책.).

25) <慶會樓>, 앞의 책.

산이 석양으로 붉게 탄다고 했다. 이 紅은 단순히 석양의 붉은색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터이다. 후구의 ‘空’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시에서는 서러움 또는 서글픔을 내포하는 말로 통한다. 다시 말해 석양으로 붉게 물든 남산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망국의 한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空’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 무렵 물가의 수양버들은 새잎이 돋아 싱그러운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물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경회루에는 어디에도 그 봄을 만끽해야 할 왕과 신하와 궁녀들이 보이지 않는다. ‘空’은 완전부정어로 텅 비었음을 뜻한다. 그러니 물가의 楊柳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절구의 ‘鳥聲’도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夕陽·楊柳·春風·水宮·鳥聲이 한데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여기에 ‘空’이라는 단 한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분위기는 일시에 淒然하게 뒤바뀌게 되어 매우 工巧롭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丹青, 풍경 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玉座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는 조지훈의 <鳳凰愁>를 떠올리게 한다. 다음 <蘆石樓吟社元韻>은 석전의 생애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匹馬東風上水樓	봄바람에 匹馬로 水樓에 오르니
龍蛇浩劫古城頭	임진난 남은 자취 옛 성터 뿐이로세.
荒祠落日鴉飛樹	석양에 묵은 사당 숲에선 까마귀 날고
折戟平沙月似秋	부러진 창 파묻힌 모래밭엔 달빛만이 싸늘하네.
繡幕毳燈燃夜雨	장막에 등근 등불 밤비에 타고르고
畫船歌鼓泛春流	유람선 풍악소리 봄강에 떠있네.
楊花如雪江聲咽	버들개지 눈 같은데 강물소리 목매이니
白首遺民恨未收	백발 유민에게 恨만 맺히네. ²⁶⁾

한시의 일반적 시상 전개 방식인 선경후정의 구성을 보인다. 頸聯까지는

26) 앞의 책.

서경을, 尾聯에서는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서경도 頷聯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스산하다. 孤城·荒祠·鴉翻·折戟과 차가운 달이 분위기는 한결 같이 쌀쌀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앞에서 이런 어두운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頸聯의 흥겨운 ‘유람선 풍악소리’도 앞의 분위기에 지배되어, 조지 거윈의 우울한 광시곡(Rhapsody in Blue)이나 심청가의 진양조 가락처럼 무겁고 음울한 회색음조로 바뀌어 버린다. 여기서 축석루에 올라갔던 시인은 망국의 유민으로서 한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시는 1936년 진주 축석루음사의 한시 공모전에서 아들 亮顯의 명의로 출품하여 2등으로 입상한 작품이다. 그는 당선 후 이 시 때문에 1개월간 구속 수감되었다고 한다.

일제는 1941년 겨울에 영국·미국과 전쟁을 치르더니 가혹한 법을 반포하였다. 그들은 창씨개명과 조선의 언문 금지, 조선역사 말살, 동방요배 강요, 조선인 징병, 식량 통제 등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당시는 매와 개가 횡행하고 생명이 마치 풀이나 다름이 없었다.

석전은 가솔들은 모아 놓고 “우리 집안은 역사를 가진 大韓國人일 뿐만 아니라 累世忠烈의 士族이라, 죽음으로써 항거할 때이니 겁내지 말라.” 하고 문패에 江湖旅人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부족한 물자와 총알받이로 징병하는 등 온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석전은 날로 수척하여 가족에게 말하기를, “불행히도 죽지 못하여 오늘의 일을 보는구나. 왜놈은 망한다. 그러나 죄는 왜놈이 짓고 망하기는 우리가 하니, 천리가 없구나. 하루라도 앞서 죽어 황천에 呼訴하고 싶구나.” 하더니 1944년 2월 17일 밤에 마을 뒤 월곡저수지에서 순절하였다.²⁷⁾

사후에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絶命詩> 첫머리에는, “천하에 道가 있을 때에는 道가 몸에 따라오게 하고, 천하에 道가 없을 때에는 몸이 道에 따라가게 하라.”²⁸⁾는 맹자의 한 구절이 써 있었다. 도가 있는 사회라면 자기의 뜻

27) 『義筆 第二』.

28) 天下有道以道殉身 天下無道以身殉道(『孟子』盡心章句上).

을 펴며 일을 해야 하고, 도가 없는 사회라면 물러나서 몸을 희생하더라도
도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滄海滔滔日倒流 큰 물결은 도도히 역류하는데,
蒼生不救竟無謀 이 백성 구해 낼 방도가 없구나.
空老人間無一補 헛되이 늙어 보탬이 안 되는 걸 생각하니
不如先去帝京遊 차라리 먼저 저승에 가 노는 것만 못하구나.

國已邱墟民又亡 나라는 구렁에 떨어지고 백성도 망했는데
何心忍辱守書床 구태여 욕을 참고 책상만 지킬 필요 있으랴.
小事營營如大事 작은 일도 큰일처럼 분주하게 쏘다녔으나
丈夫志氣愧田光 대장부 사나이 田光을 못 따른 게 부끄러울 뿐이네.²⁹⁾

석전이 남긴 절명시의 원본 글씨는 정제되지 않고 내용만큼이나 매우 거칠게 씌어져 있다. 일제의 태평양전쟁 이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최악으로 치닫던 나라 안의 현실을 목도하였지만, 75세의 노구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라는 구렁에 떨어지고 백성도 망했는데, 구태여 욕을 참고 책상만 지킬 필요 있으랴.’ 그러나 다만 田光처럼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하였다.

전광은 연나라 협사인데, 천하를 주유하던 형가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잘 대우해주고 있었는데, 태자 丹이 전광을 불러 자문을 구하였으나, 전광은 자신은 이미 노쇠하여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협객 荊軻(? ~ B.C.227)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 형가에게 태자 단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말을 하고 자신은 자결하여 버린다. 태자가 그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 자기를 믿지 못하여 한 말이라고 여긴 전담은 죽음으로써 태자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후에 형가는 태자 단을

29) 황 원, <絶命詩>(친필유고).

도와 진시황의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만다.

곧 자신은 비록 늙어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행동과를 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대개 석전의 곧은 성미는 남다른 바 있는데다가 매천에게 감화된 바 깊었을 것이다. 석전이 자결, 순국한 사실은 석하 권홍수(1882~1972)의 「黃石田公行狀」과 담원 정인보(1878~1950?)의 「石田黃先生墓碑」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망국의 향과 유민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高宗皇帝挽>(1919), <挽李耕齋建昇>(1924), <寄金時中獐所>(1928) 등이 있다.

특히 김시중에게 보낸 시에서는 ‘망국의 백성에게 자유가 없나니,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조사된다.’³⁰⁾며 망국의 백성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발하고 있다.

Ⅲ. 憂國과 抵抗意識

항일 저항시의 시적 주체는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에서도 역사적 전망을 제 시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때로는 상황의 우위에 서는 비판자가 되기도 하고, 상황의 한복판에서 절망하는 시인이 되기도 한다. 역사의 신념을 고고하게 노래하는 예언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적 주체는 민족과 국가라는 절대적 명제를 고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상상의 변주를 자족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기도 한다. 저항시의 대상은 절대 개념인 민족과 국가이지만, 비판되어야 할 식민지 현실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절대 개념이 부정되는 식민지 현실은 왜곡된 역사이며 불모의 땅이다.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조건일 뿐이다. 저항시는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예술적 도전이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³¹⁾

30) 亡國人民不自由 一言一動總爲搜(〈寄金時中獐所〉, 『강호여인시고』).

매천이 순절한 이래, 일제하 석전의 30여 년의 생애는 온통 우국과 저항의 삶이었다. 때로는 필화로 투옥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천집』을 찾기 위해 경찰서나 총독부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을의 젊은이들을 지원하여 항일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는 매천 못지않게 강건하고 당찬 기질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석전의 우국과 저항의식은 시 속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다. 이는 의병장이나 우국지사의 輓詩, 의분에 자결한 인사들의 추도시, 왜적을 물리친 유적지의 회고시,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인사들에 대한 증여시, 친일파 등에 대한 비판시 등에 주로 드러난다. 또한 특별한 시적 소재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복돋으려는 시도를 행하였다.

먼저 <寄金瑞仲>이라는 시를 보자.

경술년 가을에 倭警이 각 군 면장을 불러 합방 가부를 물은 적이 있다. 하동군 화개면 면장으로 있던 김서중은 “일본이 우리 대한에게 합병된다면 너희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하고 반문하니, 일제는 그를 투옥시켜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석전은 그에게 격려의 시를 보냈다.

俠骨堂堂不愛身	협객의 뼈는 당당하게 몸을 돌보지 않고
一將寸舌鬪強秦	한 장수의寸舌은 강포한 진나라와 싸웠네.
方壺山水終增氣	方壺의 산수는 기상을 더하고
首露王孫又有人	수로왕 후손으로 또 훌륭한 인물 이었네.
古來草澤多豪傑	예로부터 草澤엔 호걸이 많더니
今日花開作逸民	오늘은 화개의 逸民이 되었구려.
黨長四千皆君似	黨長 사천이 모두 그대 같기만 하면
我心何事血輪困	나의 마음 어찌 피가 휘감긴 듯 답답하리. ³²⁾

관리로서 작위다 은사금이다 하여 제 배 채우기에 급급한 자도 많았는데,

31) 권영민, 앞의 책, 16쪽.

32) <寄金瑞仲>, 앞의 책.

이처럼 당당하게 일체에 맞서 대항한 의기는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김서중을 ‘俠骨’과 거대한 진나라와 싸운 장수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관들이 그대와 같이 의로운 이들이라면 내 마음이 피가 휘감듯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석전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다.

讓國于今已七年	나라 넘어간 지 이미 7년
往來湖海舊山川	강호를 오가도 산천은 예대로다.
可憐土產尖惟及	가련타, 토산물은 끝으로 밀려나고
易種民間日本綿	민간에서는 日本綿으로 종자를 바꿔버렸네. ³³⁾

나라가 저들의 손에 넘어간 지 7년이 되어 산하는 옛날 그대로이나 이제 토산물까지 왜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민족 말살 정책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왜색으로 덧칠한 것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조선화폐의 통용을 중단시켜버린 것이다.

韓貨絕韓貨絕	韓貨가 끊어지고 한화가 없어졌네.
貨可絕兮史不滅	돈은 없앨 수 있어도 역사는 없앨 수 없다.
史不滅貨長在	역사가 살아 있으면 돈도 길이 남을 텐데
何始滅絕瀝我血	어찌 없애서 우리 피를 뿌리게 하는가.
靑黃赤白四銅貨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네 가지 銅錢
大小銀光武隆熙	크고 작은 銀錢은 光武 隆熙
大朝鮮我家物	대조선 우리들의 것
已行一世應萬世	一世에 쓰였으면 萬世를 가야 하니
天理昭然不可關	天理가 밝게 비춰 없어져선 안 되네.
雖令一時力可禁	잠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已作神物鬼護喝	이미 神物이 되었으니 귀신도 성내어 지키리라.

33) <易藝木棉>, 앞의 책.

山人痴性痛國亡	어리석은 山사람 나라 망함 슬퍼서
祭讀漢臘喉常咽	漢臘에 祭 지내고 목메어 우네.
(중략)	
不能討賊復帝室	적을 쳐서 왕실을 회복할 수 없어
愧看黃養三逕發	국화 피는 삼경을 보기가 부끄럽네.
三逕今又誰家土	三逕이 이제는 누구네 땅이 됐나,
去晚欲勿時已失	늦게라도 죽자 하나 때를 이미 잃었네.
韓貨韓貨與我滅	한화여, 한화여 나와 함께 없어져,
徒證千秋史家質	천추에 역사가의 자료로 증험하세. ³⁴⁾

우리의 통화 수단인 韓貨를 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통분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통용하던 화폐까지도 망해버렸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神物이니 결국은 광복이 되어 다시 통용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다. 시 속에서 석전은 자못 비장감까지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2세들의 정신무장 해제라고 보았다.

木覓山摧洌水嘸	목멱산 슬피하고 대동강도 찡그리는데
風塵虛老十年春	십년 세월 풍진 속에 헛되이 늙어버렸다.
不知君輩十三萬	모르겠구나, 너희들 십삼만 학도들 중에
鐵血爲心有幾人	쇠와 피로 마음 다지는 이 그 몇이리? ³⁵⁾

첫구는 매천의 절명시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이 나라가 이젠 망해 버렸어라.’³⁶⁾를 點化하였다. 목멱산과 대동강은 우리 국토나 우리 민족을 대유하며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

34) <韓貨絶>, 앞의 책.

35) <寄李宗植朴準東 入新學>, 앞의 책.

36) 鳥獸哀鳴海岳嘸 槿花世界已沉淪 秋鏗拚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黃 玹, <絶命詩·3>, 『梅泉集』(상해본) 권5, 9쪽.).

신은 하릴없이 늙어버렸다.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학들이야말로 민족의 혼을 면면히 이어가려면 굳건한 마음으로 민족정신을 간직해야 할 것인데, 염려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는李宗植과 朴準東에게 이러한 점을 명심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 지배적인 시어는 鐵血로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다음 시 <自總督府求送梅泉集以詩代謝>는 석전이 일본 헌병대에 직접 써 보낸 것이다.

燕賊不能生萬年	燕賊은 천만 년 살 수 없지만
遜之文章天下傳	거절한 문장은 천하에 전한다네.
四海九州滄海梅	四海九州에 창강, 영재, 매천은
俱遭烏臺無一全	함께 만났지만 烏臺에 온전한 것이 없네.
我家酷禍太甚焉	내 집은 혹독함이 더욱 심하니
八域一朝如鷹鷂	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송골매 같이 되었네.
如何今日更盡收	어찌 오늘 다시 거두어가서
欲滅人間遺落篇	세상에 遺落된 글 없애려 하는가.
有之不送況無有	있어도 보내지 않으니 황차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家家伏生腹如船	집집마다 배 같은 伏生の 창자 있다네.
腹中臟物鬼莫出	창자에 감추면 귀신도 모르리니
第待雨霽生青天	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면 푸른 하늘 나타나리.
當時急務不在詩	당장 급한 일은 詩에 있지 않는데
豎子有眼看西邊	어리석게도 영똥한 곳만 보는구나. ³⁷⁾

1912년 총독부에서 『창강집』과 『매천집』을 불온서적으로 보고 강제 수거해 간 적이 있었는데, 1920년 무렵 석전은 총독부에 『매천집』을 다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력의 결과 『매천집』을 보내와서 감사의 시를 지어 보낸 것

37) 「自總督府求送梅泉集以詩代謝」, 앞의 책. 이 시는 달리 <自京昭格洞 總督府參事室分室 苑永百年來詩作此寄贈>(『松濤閣詩稿』)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1912년 12월 19일 黃玟의 『梅泉集』과 金澤榮의 『滄江集』이 총독부에 압수당하였으며, 그 뒤로도 개별적으로 『매천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빼앗겼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다. 그런데 이 시에는 이미 전국에 배포된 『매천집』을 각 집에서 감추어 다 수거할 수 없을 뿐더러, 일제의 압제가 끝나면 언젠가는 다시 햇빛을 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시집을 수거해 간다고 해서 일제에 대한 증오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연은 중국의 고사를 用事하였다. 중국 명나라의 3대 황제인 永樂帝는 원래 지금의 북경일대인 변방을 다스리던 燕王이었다. 무지막지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약 4년 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조카인 建文帝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고 민심 또는 흥흥하였으니 영락제는 획기적인 민심수습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대학자인 方孝孺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써달라고 애걸하였다. 방효유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강제로 영락제 앞에 끌려오게 되었다. 방효유는 붓을 들어 ‘燕賊篡位’라고 크게 쓰고는 붓을 집어던졌다. 연나라 도적이 황제자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너는 도둑놈이다.”라고 욕을 한 것이다. 영락제는 크게 노하여 방효유의 입을 귀밑까지 찢어버리고, 그의 일족과 문하생 73인을 모조리 죽였다고 한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燕賊篡位’라는 글은 천하에 전한다는 말이니, 매천의 유고를 아무리 없애버리려 하지만 그의 시문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연은 집안과 세상이 일제의 압제로 심하게 핍박받고 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左傳』 文公 18년조에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마치 송골매가 참새를 쫓듯이 잡아 죽여야 한다.”³⁸⁾라고 하였다.

4, 5연에서는 『매천집』을 수거하여 불태워 없애려 하지만, 발간된 모든 책을 다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伏生은 곧 伏勝을 말하는데, 그는 진시황이 焚書할 때 백 편의 상서를 벽 속에 감춰 두었다가 한 나라가 일어난 뒤에 이 글을 찾아보니, 다 없어지고 29편만 남았으므로 이를 가지고 후진을 가르친 결과, 歐陽生·공안국 등에게 전수되었다는 고사³⁹⁾를 들어 당시 전

38) 見無禮於其君 誅之 如鷹鷂之逐鳥雀也(『左傳』).

국의 시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매천집』을 다 수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일제의 압제 또한 언젠가는 끝나고 서광이 비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시제를 보면 『매천집』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작품인 듯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고사를 용사하여 저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석전이 아니라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기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또 일제에 저항했던 사례를 소재로 연작시를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산면 광촌마을 박천조의 미망인 고씨가 더러운 일본 돈을 받을 수 없다⁴⁰⁾면서 은사금을 물리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석전은 원래 100명으로부터 시를 받아 『廣村却金歌』를 출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여건상 이를 다 실행에 옮겨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은사금을 물리친 시는 좋은 재료인데, 제가 이미 병들어 어지러움이 이와 같으니 만약 시문을 곱곰이 생각한다면 곧 두통이 생겨나므로 장편은 생각하지도 못하겠습니다.⁴¹⁾

이건방이 석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이 글을 보면, 식민 당국의 감시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却金이라는 주제로 연작시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태로운 작업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건방은 당시 양명학과의 거두로 문명을 크게 떨치고 있었으나, 1911년 『매천집』 발간 때도 그러했지만, 두통 때문에 시를 짓기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쓰지 못하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석전 친필본 『廣村却金歌』에는 석전의 서문과 윤종균, 왕재소, 권봉수, 권

39) 『漢書』 卷88.

40) 馬山面廣村 故朴天祚之妻高夫人 而不守曰 吾以未亡人食吾食衣吾衣 何受日本金乎(黃瑗, <廣村却金歌序>).

41) 却金詩 此是好材料 而弟既病眩如此 若加以究思詩文 則便生斯疼 不能生意於長篇也(李建芳, 『答黃石田瑗書』, 『문목취원』 하, 199쪽.).

홍수 등 매천시와 시인의 작품만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빈 페이지로 남아 있다.

다음은 <戲題子爵金聖根影>라는 작품이다.

前身維佛後公卿	前身은 부처를 받쳤어도 후신은 공경이요
肉食平生筆苑名	평생토록 肉食하며 筆苑으로 이름 높네.
四朝恩澤終何報	四朝의 은택을 어떻게 갚으려는지
獵獵西風子爵旌	子爵 깃발 서풍에 나부끼네. ⁴²⁾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김성근의 초상화를 보고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 불교 신자로서 지위를 탐하고, 육식을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신하로서 녹을 먹은 자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작위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초상화에 그려진 현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강한 비꼬는 수법으로 공교롭다.

석전에 있어서 이러한 우국시의 경향은 특히 고종황제의 죽음과 자신이 배후에서 지원한 3.1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버린 뒤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朴仁彦挽>을 보기로 한다.

博浪聲後更云誰	박랑사 철퇴소리 후에 다시 누구뇨
俠骨堂堂有此兒	의협심 당당한 이 사람 있다오.
再唱再囚天必視	만세 재창에 다시 갇힌 것을 하늘이 보았으리
一悲一快世皆知	한 번 비통 한 번 흔쾌 세상이 모두 알리라.
國權未復君何往	국권회복 못했는데 그대는 어디 갔나,
民氣重新我不疑	국민 士氣 새로움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口訕江湖偏有感	입으로 부음 전하매 유달리 감개가 깊어
扶頭磨墨寫哀詞	머리 싸매고 먹을 갈아 슬픈 노래 다시 쓰노라. ⁴³⁾

42) <戲題子爵金聖根影>, 『강호여인시고』.

43) <朴仁彦挽>, 『松濤閣詩稿』.

朴恒來(1871~1919)는 자가 仁彥이요, 승주 출신으로 1919년 3월 3일 손병희의 밀명을 받고 태극기를 들고 순천 남문 연자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왜헌병에게 붙잡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연창하며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다가 그 해에 獄死하였다.

起聯의 고사는 ‘張良의 조상이 五世를 韓 나라에서 정승 노릇을 하였다. 한이 秦에 멸망되자, 장량은 원수를 갚기 위하여 滄海力士에게 철퇴를 들려 博浪沙中에서 시황을 저격하게 하였는데, 빗나가서 시황의 副車를 맞쳤다.’는 『史記』 留侯世家에서 기인한다. 朴仁彥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 원수에게 저항하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義士라는 것이다. 국권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3.1만세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사기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던 것이다. ‘口誦江湖偏有感, 扶頭磨墨寫哀詞’는 자못 悲壯하다. 烈士의 죽음이 석전에게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는 것은 동문 왕수환에게 보낸 다음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어제 渭顯 조카가 또 심문을 받고 왔으니 가증스럽습니다. 요사이 우리집이 그들의 출장소가 되어 곧 와서 바로 문초하기도 하여 문밖에 발자국소리는 구두가 눈 밟는 소리로 가소롭습니다.⁴⁴⁾

이 편지를 보면 매천의 형 매천의 둘째아들 황위현이 倭警에 불들려가 심문을 받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고을 선배 박경현과 조카 위현 등이 3월 23일에 밤새도록 태극기를 만들고 구레장날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때 박경현은 구속되었으며, 황위현 또한 틈만 나면 불들려가 심문을 받았고, 심지어는 집에서조차 문초를 받았던 것이다. 석전 또한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였으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夕陽照水中 석양이 물 위를 비추니

44) 昨日 渭顯侄又被招旋來 可憎也 近日吾家 爲出張所 旋來旋招 門外朴啄聲 乃溝斗履雪 可笑知(黃 瓊, <與雲樵老人書>, 『文墨萃編』 하, 미래문화사, 1985, 250쪽.).

小魚遙可數 작은 물고기 노니는 것 셀 수 있겠네.
魚遊鷗鷺啄 물고기는 갈매기 눈을 피해
——岸底聚 한 마리 한 마리씩 기슭 아래 모여드네.⁴⁵⁾

이 시는 연못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한 서경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작은 물고기는 일제강점기에 힘없이 수탈당하는 조선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갈매기는 일제를 상징한다.

그러나 석전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만을 그리며 좌절에 빠지지 않는았다.

新城浦上白鷗飛 신성리 포구 위엔 갈매기 날고
馬老山前掛落暉 마로산 자락엔 저녁 햇살 걸려 있네.
暮潮痕作陣雲黑 저녁조수 흔적 구름을 검게 하니
疑是陳璘破賊時 아마도 陳璘이 적을 격파했을 때이거니.⁴⁶⁾

광양시 초남포와 순천시 해룡면 신성포는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초남에서 남서쪽으로는 왜장대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광양읍 쪽으로 마로산성이 보인다. 왜장대는 정유재란(1597년) 당시 육전에서 패퇴한 왜군 선봉장 宇喜多秀家(우끼다히데이)와 堂高虎(도오다가도라)가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 겸 최후 방어 기지로 삼기 위해 3개월간 쌓은 토석성으로 왜장 小西行長이 이끈 1만 4천여 명의 왜병이 주둔 하여 조·명 연합군과 두 차례에 걸쳐 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석전은 초남포에서 왜성이 있는 신성리 포구의 저녁조수를 보며 明軍 陳璘 장군이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이순신을 도와 왜적을 물리친 일을 떠올리고 있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석전은, 매번 왜적을 물리친 사실을 통하여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강희보·희열 형제의 무덤 앞을

45) <蘆汀>, 앞의 책.

46) <草南浦望倭將臺>, 앞의 책.

지나면서 이들의 영령을 기리고 있다.

晉陽殉節倍睢陽	晉陽의 殉節이 睢陽보다 장하니
兄弟從軍作國殤	형제 종군에 國殤을 지어보네.
至今白骨沉江水	지금도 백골은 강물 속에 잠겨 있고
一片英靈返故鄉	한 조각 영령만 고향으로 돌아오셨네.
中宵風雨聞號令	밤중에 비바람소리 號令으로 들리는데
百世雲山絕酌觴	백세 운산에 祭酒盞이 끊겼구나.
雙墓荒涼松柏裏	송백 사이로 두 분 묘 황량하니
行人下馬獨彷徨	지나던 길손이 下馬하여 홀로 서성이네. ⁴⁷⁾

광양 봉강면 석사리는 석전이 태어난 곳이다. 강장군 형제는 1560년경에 봉강면 신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강희보는 광양에서 100여명의 의병을 모아서 그때 당시 영호남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인 단성(지금의 경남 산청)에서 적과 싸우고 있던 백부 강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 무과에 급제한 동생 강희열은 그 때에 역시 영호남의 군사 요충지인 구례군 토지면의 석주관을 지키던 중에 휘하 군사를 이끌고 단성으로 달려가 백부를 구원하였으며 싸움이 끝나자 다시금 돌아와 석주관을 수비하였다.

진주성의 위급한 상황을 전해들은 강장군 형제는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김천일 장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 싸우다 1593년 6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장렬히 전사하였다.

사후에 고향에 이들의 묘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송백 사이로 황량하고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쓸쓸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 나라 安祿山의 난 때에 張巡이 睢陽을 지켜 싸우다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고을의 賀蘭에게 구원을 청하였더니, 하란이 거절하여 수양이 함락되고 장순은 죽었다는 고사에 빗대어, 강장군 형제의 진주성 전사는 더욱 장

47) 「吊姜將軍墓」, 앞의 책.

렬하였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지 9년이 되었으니 아직은 울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이니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이들의 몸을 사리지 않은 애국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석전은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선열들을 추모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이들을 위해 시를 지어 찾아가기도 하였다. 다음의 <寄金士璋>가 그 예이다.

寒雨癡風夜透床	찬 비 거센 바람이 밤 되자 침상을 뚫고
經年板屋鼻聲長	한 해도 다 가는데 판옥에 코고는 소리 요란하다.
意欲終爲無證案	마음 같아선 종시 증거 없도록
網羅志士作神方	지사들 망라하여 神方을 부리고 싶구나. ⁴⁸⁾

이 <寄金士璋>는 독립투쟁을 하다 수감된 金士璋에게 보낸 시이다. 1, 2구에서는 囚人의 고통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쓸쓸하고 황량한 광경, 수인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이들을 神方으로 모두 무사히 풀려나게 하고 싶다. 그리하여 석전은 ‘오호라, 나라의 치욕 어느 때나 씻어, 새해 아침 아버님 사당에 復權을 고할까.’⁴⁹⁾ 하고 조국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였다. 이는 남송의 애국시인 陸游(1125~1210)의 ‘늙어가며 세상일 부질없음을 알겠는데, 다만 九州가 통일됨을 보지 못해 서글프네. 王師가 북으로 中原을 평정하는 날, 집안 제사에서 이 아버지에게 고할 일 잊지 말거라.’⁵⁰⁾에서 點化하였지만, 그 뜻은 더욱 절실하다.

<和宋鴻韻却寄·2>를 보자.

48) <寄金士璋>, 『송도각시고』.

49) 嗚呼國耻何時雪 翻廟元朝告復權(<甲子除夕>, 『강호여인시고』).

50) 老去元知萬事空 但悲不見九州同 王師北定中原日 家祭無忘告乃翁(陸游, <示兒>, 『劔南詩藁』, 卷85, 湖南城 長沙:岳麓書社, 1998, 1718쪽.).

三呼如昨十經春 어제 같던 만세 함성 십 년이 흘렀지만
 瑞石山青日又新 서석산 푸른 기운 날마다 새로워라.
 四海同心河決力 온 나라 한맘 되어 강물이 분출되듯
 一時強迫抑何人 일시에 치달리니 어느 누가 막으랴.⁵¹⁾

광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宋鴻이 1928년에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자 그를 면회하러 가면서 써간 작품이다. 시어들의 이미지가 자못 무겁고 장쾌하다. 그는 이전에 3·1만세운동 때 선언문초안의 주동자로 몰려 수감된 최남선에게도 ‘삼천리 방방곡곡 쌓인 분노, 피맺힌 뇌성에 하늘이 찢어질듯’⁵²⁾이라며 강개한 필치로 시를 써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향촌에서 포의로 들어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리 많지 않았다. 너무나도 거센 힘 앞에서 미미한 자신을 발견하고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스스로 만사를 지었던 것이다.

다음은 <自挽> 제2수와 제3수이다.

胸中了了有千秋 가슴엔 확연히 千秋의 뜻 있는데,
 一事無成竟白頭 한 가지 일도 못 이룬 채 늙어버렸네.
 誤得家庭文字兒 家庭에 문자를 잘못 얻어,
 久而爲性死而休 오래도록 본성 되더니 죽어서야 쉬는구나.

馬革裹尸已失時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이미 때를 놓쳤고
 送客就義亦無機 정의를 위해 자객을 보내는 것 또한 기회가 없구나.
 鉛刀無用頭如雪 鉛刀도 소용없이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되어
 徒作空山老布衣 헛되이 空山에서 布衣로 늙을 뿐이로다.

가슴 속에 천추에 빛날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한 가지도 못 이루고 하릴

51) <和宋鴻韻却寄>, 『강호여인시고』.

52) 積憤三千里 血雷天欲裂<寄慰崔南善堊所>, 『송도각시고』.

없이 늘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회한만 남는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글로써만 가슴의 한을 읊조렸는데, 죽음을 맞이하여 글 쓰는 일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처량하기까지 하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하는 회한을 남기고 있다.

姜瑋(1820~1884)는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一喝하였다.

내가 일찍이 스승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시는 단지 말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물정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것이 뜻이 되고 말로 발하여 시가 된다 하는데, 소위 뜻이란 충신열사들의 세상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정인 것이다. 이 두 가지 것이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여 지은 것이다. 성인이나 현인이 아니면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울분을 느끼지 않았다면 지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태사공이 이 같은 논의는 실로 탁견이며, 옛날 태사가 각 지방의 민요를 채집한 참된 뜻이었으며, 齊詩나 魯詩를 시가의 표준이라 하였던 것이다. 고로 시에는 말로 지은 시가 있고, 뜻으로 지은 시가 있으며, 자기를 위해서 지은 시가 있고, 천하를 위해서 지은 시가 있다.⁵³⁾

위 글을 통해서 보면 석전의 시는 ‘충신열사들의 세상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정’인 만큼 뜻으로 지은 시요, 민족을 위해 지은 시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석전 황원은 30여 년의 일제강점기 내내 온몸으로

53) 某嘗聞之師曰詩不徒作 言必有物 故曰在心爲志 發言爲詩 夫所謂物者 關係天下盛衰存亡之高 而所謂志者 忠信烈士憂傷慷慨之情也 非此二者則 皆謾語矣 故曰詩三百篇 皆賢聖發憤之所作 蓋非賢聖 則不能作 賢聖而不發憤 則又不應作 史公此論實隆 古太師採詩之主意 而齊魯言詩歌之標準也 故詩有以言作者 有以志作者 詩有爲已而作者 有爲天下而作者(姜瑋, 『玄皎亭先生詩集序』, 『姜瑋全集』 상, 아세아문화사, 1978, 386쪽).

분노하며 저항한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⁵⁴⁾

시사에서 산출된 시는 음주취락으로 특징지어지나, 그의 詩社詩 가운데는 망국의 한과 유민의식의 발로로 자못 비장한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그의 시는 그의 삶의 軌迹만큼이나 일제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표출하여 자못 강건하다.

이러한 그의 시적 경향은 형 매천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그는 평생을 매천의 문장절의를 고취시키는 것과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삶으로 지냈다.

비록 표현 수단은 한시였지만, 그의 시 속에는 일제 침략주의를 철저히 증오하고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온전히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한용운, 심훈, 이육사, 윤동주 등의 현대 저항시인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치열한 시정신으로 일제 암흑기의 혹독한 감시와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선비정신으로 始終一如 망국의 한과 유민의식 그리고 우국과 저항의식을 시 속에 담아낸 민족시인이었다.

참고문헌

『義筆 第二』

『廣村却金歌』

『忠愍詩壇 入選詩 及選外方外錄』, 鍾山詩社, 1934.

姜璋, 「玄皎亭先生詩集序」, 『姜璋全集』상, 아세아문화사, 1978.

權鴻洙, 『石荷偶存』.

金文鈺, 『曉堂集』.

金澤榮, 「和黃瑗贈詩」, 『金澤榮全集』1, 아세아문화사, 1979.

李敏敘, 『西河先生集』.

54) 不願長生不怕死(〈庚午五月二十九日 卽我六十一初度 作一詩自嘲〉, 『강호여인시고』).

-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4, 김제문화원, 2001.
- 黄 瑗, 『江湖旅人詩稿』.
- , 『松濤閣詩稿』.
- 최승효, 『황매천 및 관련인사 文墨萃編』, 미래문화사, 1985.
- 권영민, 『항일저항시 감상』, 독립기념관, 1992.
- 김정환, 「20세기 求禮의 詩社 연구」, 『어문논총』 16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8. 109~133쪽.
- 편, 『礪川詩社』, 礪川詩會, 도서출판 다킴. 2005.
- 이상식, 「石田 黄瑗의 生涯와 思想」, 『역사학연구』9, 전남대, 1979.
- 장선희, 「梅月吟社 研究」,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2001.
- 陸 游, 『劔南詩藁』, 卷85, 湖南城 長沙·岳麓書社, 1998.

<투고일 : 2006. 1. 12.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K C I

<Abstract>

A Study on Anti-Japanese Resistance Poems of Seokjeon Hwang, won

Kim, Jeong-hwan

Seokjeon Hwang, won was a patriotic poet who resisted fiercely against the Japanese rule during the Japanese rule of over 30 years. He didn't fear even death.

The poems of poetical circles are mostly about enjoying while drinking, but those of his are rather tragic in the grief on the lost nation and wandering people. His poems are rather strong like his life trail, representing the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rule. This poetic tendency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elder brother, Maecheon.

Though his poems are written in Chinese, they thoroughly express the hatred of the Japanese invasion, the love for his nation and people and the yearn for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

He was a national poet who had constantly expressed his grief on the lost nation, wandering people and the concern about his nation in his poems, with the spirit of resistance and nobility like other modern resistant poets such as Han, yong-wun, Yi, yuk-sa, Yun, dong-ju and Yi, sang, in spite of the severe watch and oppression of the Japanese rule.

Keywords : Hwang-won, the Resistance Poems, Maecheon,
patriotic poet